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021. 9. 15.(수) 10:3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윤종호	1.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환경부에 부당성 건의 후 대구에 유리하게 데이터 조작으로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었는가? 구미시장은 조작된 데이터를 알고도 환경부에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 장 (상하수도사업소장)	P.3
	2.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서 당초 취수원(다변화) 이전에 구미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치적 힘의 논리로 대구 전 부시장이 환경부에 건의 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포함시켰다는 대구 부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구미시장의 입장은?	〃	P.4
	3.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조작된 것으로 용역을 바로 잡기 위해 집행부에서 검정용역비가 편성되었음에도 집행부는 용역 발주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할 수 없도록 보이콧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P.5
	4.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정 용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시간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P.6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윤종호	5. 지난 7월 14일 환경부, 대구, 경북, 구미시장의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 당시 이통장 60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왜 십여년 동안 직접적 피해를 본 고아읍, 해평면과 간접적 피해를 본 선산읍, 도개면, 옥성면, 무을면과 그리고 구미시의회가 모르게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600여명의 시민들이 집회로 반대 목소리를 내었는데 왜 시장은 말 한마디 못했는가?	시 장 (상하수도사업소장)	P.7
	6. 시장 취임 후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취수원 관련 민원인 시민의 아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취수원 이전의 명분이 없는데, 왜 시장이 조건부로 동의하였는가? 그리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P.9
	7. 최근 기자회견에서 취수원 이전 관련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망언을 하셨는데 시민이 있고 시장이 있는 것인데 시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P.10

질문	1.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환경부에 부당성 건의 후 대구시에 유리하게 데이터 조작으로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는가? 구미시장은 조작된 데이터를 알고도 환경부에 바로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

- 평소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종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2020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수원 다변화 방안과, 그에 따른 추정사업비가
 변경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 용역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들을 검토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도출
 되기까지 여러가지 부분들이 더하고, 빼지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입니다.

질문	2.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서 당초 취수원(다변화)이전에 구미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치적 힘의 논리로 대구 전 부시장이 환경부에 건의 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포함시켰다는 대구 부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구미시장의 입장은?
----	--

- 대구시의 관점에서는 대구시가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미해평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하여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연구기관의 검토 과정에서 대구 매곡·문산취수장을 대체할 수 있는 취수장으로서 검토 안으로 포함된 것이지, 전 대구부시장의 건의에 의해서 포함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	3.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조작된 것으로 용역을 바로 잡기 위해 집행부에서 검정용역비가 편성되었음에도 집행부는 용역 발주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할 수 없도록 보이콧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

- 저는 구미시장으로서
시의회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으며,
-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을 검증함에 있어
용역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 발주를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4.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정 용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시간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

-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을 검증함에 있어 용역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5. 지난 7월 14일 환경부, 대구, 경북, 구미시장의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 당시 이통장 60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왜 십여년 동안 직접적 피해를 본 고아읍, 해평면과 간접적 피해를 본 선산읍, 도개면, 옥성면, 무을면과 구미시의회가 모르게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600여명의 시민들이 집회로 반대 목소리를 내었는데, 왜 시장은 말 한마디 못했는가?
----	---

- 이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설명회 일정을 통보 받았을 때도 시일이 촉박하였습니다.
- 당시 구미코컨벤션센터(설명회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원수를 100명 내로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 설명회에 참석한 기자들 및 공무원들의 수가 30~40명 정도로 실제 구미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50~60명 정도였습니다.
-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인원수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참작하여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장단으로 정하였고,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반대특위위원들이 제외되었음을 알고 뒤늦게 자리를 별도로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부당성과
구미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질문하려 하였으나,
- 설명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무산되어,
저 조차도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6. 시장 취임 후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취수원 관련 민원인 시민의 아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취수원 이전의 명분이 없는데, 왜 시장이 조건부로 동의하였는가? 그리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

- 지금 구미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 구미산단을 축으로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 응용산업,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 구미(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했습니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의회, 시민, 언론,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고민해서,
-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구미의 미래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7. 최근 기자회견에서 취수원 이전 관련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망언을 하셨는데 시민이 있고 시장이 있는 것인데 시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

- 구미(해평) 취수장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로 내부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 구미시가 조건부 수용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송용자	1. 환경부나 수자원 공사에 구미시장은 협약서를 써준 것이 있는가?	시 장 (상하수도사업소장)	p.13
	2. 구미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관철시킬 수 있는가?	"	p.13
	3. 대구의 개발이익이 천문학적 숫자로 시중에 나도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구시가 개발이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 확답이 있었는가?	"	p.14
	4. 시장의 조건부 찬성에 대하여 그 결정이 나온 경위를 말해 달라.	"	p.15
	5. (전) 구미시장은 취수원 반대 할 때 당시 국회의원은 침묵했다. 현재는 구미시장은 조건부 찬성/ 지역 국회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	p.16
	6. 취수원 문제로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은 대구사람은 구미사람을 이해하기 어렵 다고 하고 구미시민은 대구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어떤 입장으로 소통하겠는가?	"	p.17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송용자	7. 취수원 반대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구미를 지나가는 낙동강 물은 구미물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상주지역을 지나가면 상주물이 되는데. 이런 시민들의 생각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이는가?	시 장 (상하수도사업소장)	p.18
	8. 구미시민 가족들 중 대구 거주하는 비중이 몇 % 된다고 생각하느냐?	”	p.19
	9. 대구에 물 주면 구미공단 다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구미 공단에서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	p.19
	10. 도개면 신림리에 농수부족으로 지표수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허가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이다. 왜 농민들에게는 낙동강 물을 주지 않으면서 대구에는 물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에 대하여 어찌 생각 하는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해 달라.	”	p.20

질문

1. 환경부나 수자원 공사에 구미시장은 협약서를 써준 것이 있는가?

-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용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협약서나 이와 유사한 형식의 문서를 체결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

2. 구미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관철시킬 수 있는가?

- 구미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 요구사항은 KTX 구미역정차 등 주로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대외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 조건부 수용이므로 구미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질문	3. 대구의 개발이익이 천문학적 숫자로 시중에 나도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구시가 개발이익이 없다 것에 대해 확답이 있었는가?
----	--

- 대구시는 필요량 57만톤 중 일부인 30만톤만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을 개발 할 수도 없고
또 하지 않겠다고 확답하였고,
-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심의·의결 시에도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므로,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해제로 인한 개발은 절대 불가합니다.

질문

4. 시장의 조건부 찬성에 대하여 그 결정이 나온
경위를 말해 달라

- 지금 구미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시기에, 구미산단을 축으로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 응용산업,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철도, 도로 등 대형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구미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고,
낙동강 벨트를 축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며,
공단 활성화를 통한 더 나은 구미,
미래 100년을 설계할 기회라 판단됩니다.

질문	5. (전)구미시장은 취수원 반대 할 때 당시 국회의원은 침묵했다. 현재는 구미시장은 조건부 찬성/ 지역 국회의원은 반대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	---

- 저는 구미시장으로서, 미래의 구미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 향후, 대구·경북은 구미를 중심으로 메가시티급 도시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직 시민과 구미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취수원 이전을 통해 상생, 협치, 실리를 가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취수원 문제로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은 대구사람은 구미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구미시민은 대구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어떤 입장으로 소통하겠는가?
----	---

- 어느 시·군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대구취수원을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해서 대구시가 깨끗한 물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로 인해 구미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조건부수용으로 추진중이며, 향후 정부로부터 구미시가 원하는 충분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7. 취수원 반대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구미를 지나가는 낙동강 물을 구미물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상주지역을 지나가면 상주물이 되는데, 이런 시민들의 생각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이는가?
----	--

- 낙동강의 물은
낙동강유역 주변 지역들과 공유하는 공공재입니다.
- 구미산단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피해를 받는 지역은 구미보다는 대구 포함한 하류지역이고,
- 이와 반대로 상주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다면,
구미시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 이처럼 낙동강 물은 낙동강 유역 주민들 모두의 물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문제로 인한 대구취수원 이전 뿐 아니라,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 관리를 위한
낙동강 수질 개선에도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8. 구미시민 가족들 중 대구 거주하는 비중이 몇 % 된다고 생각하느냐?
----	--

- 통계조사를 파악해보진 않았지만, 구미시민 중 많은 분들이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 향후 10년 이내에 대구·경북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통합 되어 하나의 생활권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9. 대구 물 주면 구미공단 다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구미 공단에서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	---

- 구미해평취수장 취수시설 용량은 464,000톤/일, 일평균공급량이 생활용수 160,000톤/일, 공업용수는 칠곡, 김천 일부와 5공단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90,000톤/일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14,000톤/일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질문	10. 도개면 신림리에 농수부족으로 지표수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허가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이다. 왜 농민들에게는 낙동강 물을 주지 않으면서 대구에는 물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 어찌 생각 하는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해 달라
----	---

- 도개 신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사업비 39억원을 투입,
기존 양수장을 보강(양수장신설 1개소)하여
도개면 신림리, 도개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보 관리방안 결정 시까지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가뭄 대책에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 이 문제는 대구 취수원 이전과는 무관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재협의를 통하여
‘21.09.09(목)일에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한 상태로,
환경부에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